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8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4. 12. 27(금) 14:03~17:55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구문모 위 원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정갑영 위 원
홍성태 위 원
- 불참위원 : 배은주 위 원
성기숙 위 원
왕치선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87차 전체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 종료 후 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했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공연예술팀 조준형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3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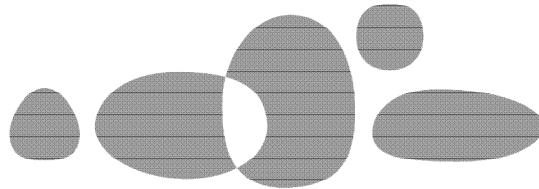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9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의안 1089호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 의안 1090호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2025년 이월 계획, 의안 1091호 비상임위원의 심의·의결 제척 여부 결정, 의안 1092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국제교류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1093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추가공모 계획(안), 의안 1094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예술인력육성 연수단원 지원, 예술단체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1095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문학 창작주체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1096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1097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1098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다원예술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1099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1100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심의 결정의 건, 의안 1101호 2025년 정책연구과제 선정의 건 등 의결안건 13건과 보고안건 7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장미진 위원님 왜 나가셨어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가신 건가요?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전차 회의는 회의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개최한 제384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어 1건은 원안의결, 2건은 유보되었습니다.

12월 5일에 진행한 서면 의결은 원안 의결 1건 안전 유보 1건으로 결정되었고요. 12월 18일에 진행한 서면 의결은 상정된 안전 2건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1089호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입니다. 강성규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경영지원팀장 : 예. 회의자료 6페이지입니다.

안전번호 제 1089호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본 계획의 최종 목표는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0명이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사망자와 부상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은 2024년 8개에서 아르크꿈밭극장 1개가 추가된 9개이고 전담팀은 3개, 전담인력은 총 29명입니다.

예산은 2024년 45억 원 대비 약 10억 원을 증액한 55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설비 개보수 비용 4억 원, 안전관리비용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으로 회의자료 8페이지입니다.

먼저 나주청사 리모델링, 대극장 개질 공사 그리고 아르크꿈밭극장 유지보수 등 총 8개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파트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및 FMS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점검은 위원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 주재하에 총 6회. 그리고 안전관리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총 1,505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교육은 공통 교육 및 시설별 안전교육을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진행하고 훈련 역시 시설별로 연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및 근로자 각 6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사실 안전경영책임 문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자료를 받아도 잘 모르거든요. 다른 기관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공간 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계획을 세울 때 이럴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정도 수준이고 왜 저쪽은 이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설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시설공간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안전이 되었는지는 사실상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

는 생각이 들어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우리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리는 하는데요. 구문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안전관리 진단을 하는데 참고하셔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장미진 위원님은 들어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라고 하세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전화통화가 지금 안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안전번호 제1090호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2025년 이월계획(안)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예기금 사업예산 중에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 2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기준으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의 일반수용비 7,000만 원 그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95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각각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 등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입니다.

아르코예술극장이 1981년도 준공 이후 현재까지 43년이 경과 되어져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편의 등을 위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소요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가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초자료 조사 그리고 분석, 건축공간 및 시설현황 분석, 공사비 산출, 정책 및 경쟁성·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아르코예술극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비타당성 대상은 2025년 4월경에 선정되는데 그때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 대응을 하고 연말연시에 추가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계획을 내년도 2025년 3월까지 연장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고자 안전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개요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원래 계약금액이 1억 7,63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잔금에 해당하는 40%인 7천 53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예산은 총 170억 원이고 그중에서 95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현재 수행 중인 청년문화예술패스 중앙관제시스템 고도화 용역이 내년 초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해당 계약금액의 잔금 9,000만 원을 이월하는 것과 문체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지원금 94억 1,600만 원 그리고 관련하여 홍보 등에 투입되는 제반비용 400만 원까지 포함해 총 95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동일한 내용을 표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료로 같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억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2월까지 그것을 쓰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로 아예?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러니까 현재까지 발급 받은 인원이 대략 80%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급을 받은 인원 중에서 아직 지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한 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해서 이월하는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내년 3월까지 사용되면 이월된 것으로 안 보는 거죠.

서승미 위원 :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건가요?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것까지 하면 얼마 정도? 딱 맞게 되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현재 30억 원 정도는 불용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말까지 발급 받지 않은 인원이 대략 20% 정도 되기 때문에 20% 정도의 발급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30억 원 정도는 불용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이게 홍보의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주간회의 때마다 독려를 했고 홍보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심지어 병무청에서 올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급률은 80%인데 사용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쓰는가?” 대상자들과 간담회를 해 봤어요. 해봤더니 “이것은 순수예술밖에 쓸 수가 없는데 순수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예술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근본적으로 대상을 19살로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순수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경험하게 한다고 하면 저학년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더니 “일단 처음 해 보는 거니까 내년까지 해 보자.” 라는 게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하고요. 그 대신 내년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고 장르도 공연 중에서 뮤직 페스티벌에도 쓸 수 있게 해 보자는 것까지 확정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하나 물어볼게요. 아르코예술극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43년 된 아르코예술극장이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년 전 태풍 때 외부의 벽돌이 무너지는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지금까지 부분부분 리모델링을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전격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현재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기본 계획한 연구 내용들이 어떤 거냐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현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범위를 정하는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누가 봐도 건축과 관련된 게 아닌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에 대한 선호도 등을 같이 조사해야 되니까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선호도나 경제성,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은 다른 건데요. 후자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설계나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실시 설계가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되는데 여지의 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재건축까지 가능할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게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 같으면 문화관광연구원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뒤에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구조가 어떻게 될 변경한다는 것을 문화관광연구원이 뭘 합니까?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사실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은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제안서고요. 다만, 여기에서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금액적인 면입니다.

정갑영 위원 : 다 좋은데요. 여기에 비용이 1억 7,000만 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억 7,000만 원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위한 구조의 문제나 설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정갑영 위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 편익조사는 그렇게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연구비의 대부분이 전자인데 전자는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이것은 용역발주계획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겁니다.

구문모 위원 : 명확한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갑영 위원 : 이런 식으로 용역발주가 나간다면,

정병국 위원장 : 죄송합니다. 발주를 할 때 이것은 경쟁 입찰인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경쟁 입찰을 해서 그쪽이 결정된 건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고지가 되었을 것 아닌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PT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정갑영 위원 : 전체적으로 더욱 더 의심이 가는데요.

구문모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걸요.

정병국 위원장 : 그때 경쟁 업체들 중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나 그쪽에 왜 점수를 줘서 선정되었는지를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정갑영 위원 : 이런 용역은 보통 나갈 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업체가 해야 되고 어디가 전문성이 있으니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서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감사한다고 해도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라는 게 ‘부정’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나?” 문광연은 이런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에 타당한 기관이 아닌데요. 그런데 왜 여기에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용역을 문광연이 담당을 했나? 심사위원이 있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거쳤겠지만 누가 봐도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나가는 용역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기관이 들어와서 해도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결정하면 그냥 하는 겁니까? 나는 원칙이 좀 의아스럽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니까 예술극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때 기재부와 문체부와 협의를 했을 때 부처 소속의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1차적으로 문체부 부처 안에 있는 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재부에 다시 신청하고요.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할 때 하게 되고 기재부에서 KDI에 또 타당성 조사를 그것을 바탕으로 넘어갑니다.

정갑영 위원 :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이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을 위한 설계는 아니라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순수한 타당성 조사지 설계 이런 것은.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실시 설계에 대한 범위가 아니고요.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것은 향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 긍정적 결과를 얻었을 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이 나갔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구문모 위원 : 제 생각에는 정갑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바르게 하려면 아마도 전문 업체와 컨소시엄이 되면 그게 가능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의심이 가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그쪽 연구원 안에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소시엄을 그 안에 이루고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전문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따로 있어요.

정병국 위원장 : 아까 류재수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팩트면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홍승욱 팀장께서 설명을 정부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문제부와 관련된 모든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문관연에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시설물의 타당성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위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과 관련되어 정갑영 위원님이나 구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예타를 하는데 예타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총액, 그러니까 예산 총액 대비 몇 %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처음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기재부에 올렸을 때 총액이 얼마고 몇 %를 받아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절차나 그것과 관련된 법규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확인을 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정갑영 위원 : 주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구문모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주시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같이 과업지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예산을 확정할 때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서,

정병국 위원장 : 지금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단순히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느냐는 문제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절차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할 적격 업체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나 규칙 등을 설명을 드리세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에 아르코예술극장이 관객개발 측면 또 후원을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라운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혹시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라운지에 대한 검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세부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공간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가 그때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끌어내려면 그런 게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문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월금액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보면 지출계획이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혀 있고 구별이 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등으로 너무 굵직하게 해 놓은 바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이월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 관리규정에 있거든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회의자료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향후에는 일반수용비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용비의 실제 지출내역까지 상세하게 명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원금에서 94억 1,600만 원 그리고 홍보 등 제반비용이 400만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운영하는 중앙관제시스템 고도화 용역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잔금이 9,000만 원인데 통합해서 전액이 일반수용비다 보니까 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했는데 향후에는 명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혹시 이월금을 비용지출계획을 세울 때 중복이라든지 검증은 하셨어요? 예를 들어 홍보 같은 경우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출한다고 하면 의미가 다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비용으로 통치지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홍보한 게 있다면 이번에는 어떤 근거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남겨 주셔야 뒤탈이 없을 겁니다. 제가 괴롭게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안전할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예산이 축소되든 증액되든 간에 증액을 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를 저는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해서 1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라고 따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타당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산출근거는 있지만 제가 명시를 못했는데 향후에는 명시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향후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바로 드리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말씀드리면 발급률이 78.9%였습니다. 78.9%에 대해서 아직 불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해 발급은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94억 1,600만 원입니다. 그 금액만큼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전번호 제1091호 비상임위원 심의·의결 제척 여부 결정입니다. 이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17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전은 비상임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지원심의에 참여하고 해당 심의결과가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경우에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을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에 심의·의결에서 제척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경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결정된 이후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담심의회 구성, 심의위원 후보단 층원까지는 합의가 되었지만 심의 참여사업 심의결과에 전체회의 심의·의결 참여 여부까지는 미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보고안건, 의결안건 등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계속 유보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번 더 의결을 위해 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에서 결정을 요청드리는 사항은 비상임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하고 해당 심의결과가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경우에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을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지 여부입니다.

지난 서면 의결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심의·의결에서 심의가 지원사업 공모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에 “심의·의결이라고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위원회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결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의미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또 제척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

이므로 제척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즉 현재와 같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결정에 따라서 제척으로 의결이 될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3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3호로 “위원이 지원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안전에 대한 사항” 이 신설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결정될 경우에는 현행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예,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결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이야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쉽게 말하면 전체회의에서 안전으로 상정된 것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훈경 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병국 위원장 : 아닙니다. 본 안전에 대한 심의와 의결한다는 겁니다.

이훈경 위원 :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이월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같은 심의·의결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훈경 위원 :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서면 의결을 하기로 했던 게 왜 부결되었는지를 설명 요청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부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성기숙 위원께서도 카톡방에도 올리셨다고 그러고 문제를 2가지 지적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유를 하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담심의제 심의·의결 전체회의에서 지난번에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가 서면 의결을 하는 안전 내용에 대해서 몇몇 위원들께서 “명확하지가 않다.” 라고 한 게 이훈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심의를 심사하는 심의로 잘못 인식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만 했으면 그것만 바뀌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을 하게 해 달라.” 라고 했고 이것은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고 이렇게 그냥 처리하면 사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바라.” 라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수의 의견이 “직접 대면해서 의결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 상황을,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담심의관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참관을 하게 되었느냐는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그동안 전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물어왔는지를 김성범 팀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유보된 이후에 동일한 문구로 12월 5일에 서면 의결을 상정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5일 저녁에 위원 단톡방에서 심의·의결에서 의미하는 심의가 지원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정 요구를 주셨고요. 어떤 위원께서는 동일하게 “본 안건은 12월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대면으로 의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해당 사항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다고 전달해 드렸고요. 바로 다음날 오전에 문구 지적과 대면 의결 요구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여쭙봐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무처장이 다른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렸고 문구를 수정하고 대면 의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여쭙고 제가 그 이후에 대면 의결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단톡방에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공지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면 의결을 하는 게 좋겠다.”, “대면 의결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기초로 해서 대면 의결로 하는 것을 상정했고 기존에 올린 서면 의결은 안건 유보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대면 의결로 상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다음에 전담심의관 참여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전담심의관 지원심의회의.

구문모 위원 : 잠깐만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대면으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전체위원 중에서 몇 명으로 해서 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것이죠. 항상은 아니지만 모호한 것들이 항상 있어서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야 후폭풍이 없죠.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그다음에 대면에서 결정할 것과 서면으로 해서 결정할 것은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도 안 하고 쓱 넘어가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런 걸 주의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사무처장이 지금 장관 주제 기관장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갔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한 분이 대면 의결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두 분은 서면 의결을 했는데 철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바로 “대면 의결을 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나머지 위원님들께 여쭙았는데 전체적으로 7인이 동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대면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된 뒤에 또 다른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직접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 과정에서 카톡이든 전화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니까 계속 말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더 이상 개별적인 답변은 안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실무진들한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담심의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잠깐 구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말씀해 주신 게 대면 의결과 서면 의결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규정상 보면 서면 의결은 경미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 서면 의결로 진행을 하더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대면을 부의를 요구하면 다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

니다. 경미성,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이 안건을 서면 대신 대면으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구문모 위원 : 글썄 이해는 하는데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논란이 핫했을 때 명확하고 침착하게 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고 민감한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결정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꼬리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 그날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을 하고자 했더니 계속 반대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홍성태 위원께서 “그러면 며칠만 말미를 주고 숙고해서 서면 의결로 하자.” 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무시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아니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몇몇 위원들께서는 저한테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운영을 하느냐?” 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내 의견이 다르면 다른 것을 충분히 게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의를 해서 다수결 절차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방향에서 성기숙 위원님이 몇 가지 의견제시를 하셔서 안 된 게 없잖아요. 다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처음에는 비상임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논의를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주시니까 부분적으로 “일단 시범으로 해 보자.” 라고 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안도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고 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절차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문모 위원 :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으로 하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서면으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팩트에 근거해서 기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뒤에 가서 사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만큼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논란이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담심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사무처 전담심의관의 지원심의위원회 참관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담심의관을 도입한 목적이나 직무 자체는 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선정된 지원사업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서 차기 심의에 반영하는 것이 전담심의관의 임무입니다. 2025년도 정시공모를 받다 보니 신청건수도 많고 심사량이 많기 때문에 창작산실과 창작주체로 나뉘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심의관이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선정된 사업에는 충실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심의관이 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전담심의관이 시간 여건이 되었을 때 창작산실 심의에 참관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 위원님들께 “참관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각 전담심의관, 담당 팀장, 본부장 등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악 분야는 우리가 음악창작산실 심의를 할 때 1차 서류심사가 있고 2차 인터뷰심사가 있고 3차 실연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담심의관들은 창작주체 심의와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3차 실연심사부터 들어

잡니다. 하지만 1차나 2차 때 어떤 얘기가 논의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팔로업을 하기 위해서 창작산실 2차 인터뷰 심의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우리 담당심의관이 담당 위원님께 상의를 드렸고 'OK'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심의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원예술 분야는 창작산실과 창작주체로 나뉘어서 심의를 했는데요. 1차 심의 때는 저희 담당 팀장이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담당위원님께 “전담심의관은 전체사업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취지를 설명드렸고 해당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용 분야는 말씀드린 취지의 설명을 드렸으나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는 심사에 전담심의관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 무용 분야의 심의관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해서 새 심의관을 인사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상임위원께서 임기에 맞는 심의 참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심의관은 참관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 무용 분야에는 들어가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무용 분야에 전담심의관이 임금피크제에 내년부터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풀타임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담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전담심의관의 취지는 처음부터 심사를 하고 심사의 방향에 따라서 1년 동안 그 결과까지 모니터링하고 결과보고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의부터 참여를 해야지만 그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전담심의관 대신에 전담심의를 공모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2025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해당 비상임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 이런 문제제기를 실무진에게 했다고 해서 제가 실무진한테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 피크제니까 올해까지는 그 전담심의관이 계속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모니터링하는 것은 새로 임명된 전담심의관이 모니터링을 하면 내년도 전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비상임위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들어갔더니 “왜 감시를 하려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굳이 비상임위원이 원치 않는데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녹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원치 않는 것은 넣을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셔서 꼭 저희가 감시를 하는 것 같이 카톡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어느 과정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심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의구심들과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우리가 쌓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만큼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하시면 전담심의를 참여하셨던 비상임위원이 계신 상황에서는 전체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제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주셔서 안건으로 올렸을 뿐입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의심을 하거나 “이 제도는 안 된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의사를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언을 하셔서 카톡방에 올리시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참 안타깝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거기에 답변을 하고 대응하게 되면 또 말에 말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동안 경과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되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오늘 문제제기를 하신 성기숙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와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분명 지난 8월 장관님 임

명 이후로 심의관이 전담심의관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현장을 설득하고 공청회를 걸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모두 심의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왜 이게 감시나 다른 의견이 나왔는지? 저희가 지난 8월부터 회의를 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한 것은 다른 의미였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그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려야겠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도 완전한 제도는 없다. 그럼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 보자고 모두 동의해 주셔서 부분적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분들은 들어가시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돼서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던 게 맞고 새로 임명되신 분들이 그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그 과정에서는 그 이전에 결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죠.

이훈경 위원 : 알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러면 “전담심의관이 참여하면 좋겠느냐?” 라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훈경 위원님은 “당연한 것인데 동의가 필요하냐?” 라는 얘기인가요?

이훈경 위원 :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미 예전에 의결이 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문모 위원 : 좋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동의를 얻었을 때 들어가고 동의를 안 하면 안 들어가구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 말씀을 꼭해하시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들어가서 모니터를 하고 팔로업을 하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해당 비상임위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무진한테 안 된다고 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굳이 비상임위원이 계시고 나중에 모니터를 할 때 들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참석을 직접 하지 않으면 모니터를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보다는 덜 하겠지만 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비상임위원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구문모 위원 :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제도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정할 때는 비상임위원이 심사까지 들어가는 게 결정되어 있지 않던 상황인데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런데 바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차원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훈경 위원 :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의결하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에 맞는 방법의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구문모 위원 :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듣기 거북한데요.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그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병국 위원장 :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를 하면서도 여야 간에 대립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로 의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급적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구문모 위원 :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제도를 가만히 들여보니까 원래 제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의했을 때 들어가고 동의를 안 했을 때 못 들어가고”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원칙이 아니지 않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다 동의하시나요?

구문모 위원 : 뭘 동의해요?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거수를 통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위원 심의·의결 제척에 찬성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지원사업 심의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의결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할지에 대한 본 안건은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제척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그러면 찬성이 7인, 반대 1인.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092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국제교류 지원심의 결정의 건부터 안전번호 제1096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제척 대상이 없으므로 일괄 보고 후 일괄 논의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안전별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번호는 1092호부터 1093호까지입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국제교류사업 지원심의 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문체부 산하 국제교류 기관 간 조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3개 사업에 한해서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국제협업지원, 아르코사업 연계 진출지원에 정시공모를 받았습니 다. 총 423건 약 120억 원이 신청되었고 그중에 총 45건에 지원결정금액은 9억 7,06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20건에 1억 3,790만 원, 국제협업지원은 24건에 7억 6,770만 원, 아르코사업연계해외진출 1건에 6,500만 원입니다. 저희 아르코의 엔카스를 통해서 직접 지원신청한 것만 대상이고요. 해외협력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선정한 것들은 별도로 뒤에 빠져 있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건수가 적어졌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술위는 이번에 문체부 의 국제교류 기관 간 조정에 의해서 창제작에 방점이 찍히고 단순 공연, 전시, 투어, 행사, 1회성 계기성 과 같은 사업들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었고 이쪽 예산이 운영비 포함해서 약 200억 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4쪽입니다.

추진 경과와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두 차례 통합심의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지정형 사업이 12월 11일 통합형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때는 문학 심의위원 2인, 시각예술 2인, 음악 2인으로 통합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12 월 13일에 통합으로 각 장르마다 1인을 모셔서 통합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별 채점을 한 후에 종합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국제교류사업에서 신규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문학 분야의 장은수 심의위원 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심의 당일 새벽에 포기 의사를 밝혀서 문학위원 1인을 제외한 후 심의를 진행 하였고요. 해당 심의위원께서 전수 검토를 20%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제외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 배분은 저희가 정시공모를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에 신규 해외협력기관을 발굴 중에 있어서 추가 공모에 예정되는 예산을 따로 배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의에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나 장르별 예산의 칸막이를 두지 않고 사업 방향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심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 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수와 예상액은 해외 협력기관에서 직접 신청하고 선정한 기관들은 빠져 있습 니다. 그래서 전체 국제교류 예산 안에는 예산 배정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33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해외 협력기관에서 직접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사업들이 6건 있는데요. 하단에 선정건수 1, 1, 1로 기재된 사업들과 뒤에 아르코사업 연계에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 사업입 니다.

34쪽입니다.

심의 회피는 3건이었고요. 행정결격은 21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사업 공고가 나갈 때 국제협업지원 창제작 사업과 내부의 창작주체 다년, 시각예술창작산실 다년 지원 은 동시에 선정이 불가능해서 동시에 선정된 2가지 사업은 사전에 사업 포기를 하였고 심의위원들 동의 를 받아서 후보자로 올린 단체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이 1094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사업, 예비 예술인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연수단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단원지원사업은 이번에 무대기술인턴까지 같이 포함해서 선발이 결정되었고요. 총 지원결정건수는 단체 기준으로 281건입니다. 지원결정액은 95억 2,000만 원입니다. 문학 5건, 시각예술 43건, 연극·뮤지컬 74건, 무용 28건, 음악 44건, 전통예술 45건, 문화일반 42건으로 총 28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을 보시면 지원결정건수는 총 32건입니다. 예술대학이 12개 대학, 예술단체가 20개 단체로 총 32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총 지원결정액은 36억 9,4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연수단원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과 무대기술 인턴 지원사업은 민간 및 공립문화예술단체에 10개월의 인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체의 자격조건에 따라서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연수단원과 인턴십을 지원하는데요. 민간에는 2,100만 원, 공립에는 1,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추진경과 및 일정은 71페이지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문학 분야에서 3인, 시각예술 분야 3인, 연극·뮤지컬 분야에서 5인, 무용 분야 5인, 음악 분야 5인, 전통예술 분야 5인, 문화일반 분야 5인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접수결과 총 589건이 접수되어서 300억의 지원금액이 신청되었는데요. 선정결과 9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 심의 결과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28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심의 제척은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심의 회피에 총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피사항에서 선정단체는 회피 내용이 없었으므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음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결격은 총 31건이 있었습니다.

붙임1을 보시면 문화예술연수단원사업에 심의 결정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 결정내역은 자료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예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은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및 최초발표지원을 통한 예술현장 진입기회 제공 등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예술대학 및 예술단체입니다.

예술대학에는 7,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예술단체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저희는 문화일반에서만 7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 7인이 1차 서류, 2차 인터뷰심의회까지 진행하셨고요. 129페이지를 보시면 예술대학은 39개 대학이 지원을 했고, 행정결격 1개 대학이 있어서 심의대상은 총 38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는 68개 단체가 지원을 했고 심의대상은 총 67개 단체였습니다.

심의 결과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거쳐서 12개 대학 20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특징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의 가점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비수도권 선정비율이 40.2%로 되어서 지역균형제도 기준 비율 25.4%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심의 제척·회피 현황에서 심의 제척 대상은 없었고요. 회피는 총 1건이 있었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심의 결정내역을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음은 김나영 문학지원팀장께서 의안 1095호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잠시만요. 지금 유병은 팀장이 1092호 안건을 보고드린 다음에 1093호 안건인 해외레지던시 참가지원 추가 공모계획 건을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의안번호 1093호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6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죄송합니다. 2025년 문예진흥기금 해외레지던시 참가지원 추가공모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사업에서 18개의 해외레지던시 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3개의 저성과 기관과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올해 8개 기관을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그중에 3개 기관은 정시공모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결과 보고를 드렸고요. 정시공모에 포함되지 않은 5개에 한해서 공모예산 3,540만 원으로 추가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문학 2개소, 무용 1개, 음악 1개소, 문화일반 미국 뉴뮤지엄과 영국 에든버러 축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결을 받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31일부터 공지를 해서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2월 1주와 2주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2월 중에 결과 발표를 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전담심의위원 미적용 사업입니다.

주요사항은 원래 영국 에든버러 축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시공모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후보가 적격하지 않아서 저희가 재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하나는 원래 연극·뮤지컬 분야로 진행했었는데 연극·뮤지컬 분야로 좁히다 보니까 지원신청 건수도 적고 해외 협력기관에서도 연극·뮤지컬보다는 공연예술 전반으로 분야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극단의 기획자로 한정했었는데 기획자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자 플러스 연출이나 제작PD까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원래는 연극·뮤지컬에서 문화일반으로 변경해서 진행되었음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ZKM과 미국 뉴뮤지엄 같은 경우는 해외 협력기관에 직접 신청해서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음은 김나영 문학지원팀장이 의안번호 1095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의안 제1095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문학 창작주체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문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문학생태계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창작주체 안정적인 활동을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학 분야는 작가들이 계속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원이자 유통채널이기도 한 문예지와 지속적인 집필 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을 설정해서 창작주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시공모 때 계획을 의결 받았고 전수검토를 거쳐서 이후 1차와 2차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를 드립니다.

14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이었고요. 문태준 시인, 구효서 소설가, 송수연 평론가 심진경 평론가 그리고 내부에서는 전담심의관으로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문학사업을 담당하셨던 정대훈 심의관

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계셔서 심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졌고요. 심의 기준은 14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사업수행 역량, 3년간 활동 계획,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접수결과는 총 50건이 접수되었고 1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 신청서 미제출과 지원자격 미해당 결격 2건으로 심의에는 4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배정예산 9억 600만 원에 대해서 총 34건을 선정하였고요. 선정률 68%, 전체 선정 중 지역은 38.2%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타깝게도 문예지를 폐간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예비후보도 3건 선정을 했습니다. 회피와 행정결격은 서류로 같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내주 월요일에 결과 발표를 하고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의안 1096호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1096호 2025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예산 13억으로 신작과 2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고 또한 이 작품들 가운데 우수한 레퍼토리를 육성하는 사업들입니다.

작품별 지원의 규모는 2,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복합예술까지 총 237건이 신청하였고요. 이 가운데 210건이 1차 심의대상 건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0건의 심의를 통해서 2차 때 23건의 인터뷰 대상을 최종 결정하였고요. 지원결정 현황은 총 16건에 배정된 예산 7억을 모두 소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페이지 16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제작지원 사업은 총 166건이 신청했고요. 그 가운데 약 84억 규모로 지원신청을 했고 그 가운데 1차 서류심사에서 18건을 도출하고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13건을 결정해서 지원금액 총 6억 원을 지원결정하였습니다. 총계로는 총 403건 중 360건이 심의대상에 있었고요. 그 가운데 최종 29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경과와 일정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회의는 1차 서류가 연극·뮤지컬 12월 5일 시작해서 무용, 음악 등 나머지 분야가 12월 6일에 1차 서류심의를 마쳤고요. 2차 인터뷰는 12월 20일과 21일에 걸쳐서 연극부터 복합예술까지 전체 심의위원들이 통합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은 해당 분야 위원님들과 사무처가 각각 1.5배수 내외로 후보단을 구성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극·뮤지컬과 해당 분야의 위원님들이 각 2명, 1명씩 구성이 되었는데요. 연극과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약 200건이 넘는, 그리고 대분까지 모두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많이 배정을 하였고 나머지 해당 분야들은 각 1명씩 배정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행정결격 사항이 43건이 결정되었는데요. 이중에 다수의 작품들이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는 필수 제출서류인 대본과 악보를 거의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이 행정결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고 사안인 25.4%를 달성하려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공고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할 수가 없어서 기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13.79%인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제척과 회피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제척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심의 회피 건은 총 16건이 있습니다. 회피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결격사항의 세부적인 사항들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092호 안전부터 제1096호 안전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문화예술연수단원 무대기술 인턴과 관련해서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가점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청년예술가가 어느 정도 채용되는지 비율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후에 선정된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연 공간에 대한 확장성이 조금 더 추후에 가능한지? 왜냐하면 현장예술과 또는 이번에 연구 용역으로 예술생태계를 했을 때도 지역에 있는 공연 공간들의 인력에 대한 부족성이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문화재단에서 파견이 되면 거기에서 극장으로 넘어가는 제도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아닌 공공극장도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확장이 추후 가능한지까지 3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일단 연수단원지원사업은 지역가점은 아니고 예비예술인지원사업에 지역 가점이 있고요. 연수단원지원사업은 안 그래도 지역에서 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라 지역 가점이 없어도 지역에 많이 배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연수단원사업의 지역 비율을 찾아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37.9%가 비수도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예. 7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립극장의 경우 무대기술인턴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대기술인턴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연장 등록증이 반드시 있는 경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다 합쳐서 공연장이 반드시 있는 기관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의를 할 때 인턴이 가서 연수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 인턴을 파견하려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수단원은 공공 쪽에 파견하는 비율이 극히 적은데요. 무대기술인턴은 그래도 공립공연장에 배치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훈경 위원 : 그 부분을 조금 더 추후에도 확장해서 체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늘려가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모니터링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연수단원은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일단 연중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 기준으로 281개 단체를 선정하였는데 281개 단체 모두 다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단원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가장 먼저 따지고요. 연수단원이 개인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연수단원이 정말 연수를 할 수 있는 선후배 관계가 되어 있는지? 노무 관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구조가 연중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모니터링이 되는 것은 공간이나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인 것 같은데요. 채용된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따로 있는 건가요?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기관에서의 인력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경 위원 : 아니요. 채용된 인력들의 일에 대한 성실성이라든가 임하는 자세는 따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가요?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쌍방에 대한 모니터링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130쪽에 보면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 연계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비율이 40.2%로 되어 있고 기존비율 25.4%를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초과한 이유가 뭔가요?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비수도권 비율을 25.4%가 기준 비율은 아니고요. 25.4%는 올해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 지역균형 제도의 평균 권고 비율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올해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대학을 선정하고 보니까 지역비율이 40.2%가 나온 것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을 25.4% 정도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수도권에 대학들도 많고 관련 학과들도 많은데 이렇게 25.4% 정도를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확 뛰어서 40%가 넘었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학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사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위해서 비수도권 신청비율을 준수하도록 심의위원회에 권고를 드렸지만 일부러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예비예술인 지원제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평균 점수에서 표준편차의 0.2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 점수가 심의를 할 때 비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점수가 작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의를 하고 보니까 사업계획의 적절성이나 예비예술인들의 현장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의 우수성 등에서 점수를 잘 받은 경우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은 어떤 프로젝트 사업의 수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기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효과를 끄집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 예술인을 양성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0.2%의 가점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뚜렷한 수월성 때문에 차별이 있거나 차이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이 사업이요.

김진각 위원 : 그러면 굳이 기준 비율을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25.4%를 뭐하러 못 박아 놓죠?

정병국 위원장 : 아마 그것은 최소치를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김진각 위원 : 별 의미는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도 지역균형 비율이 배제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최소치를 잡아 놓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어느 정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지키려고 사실상 심의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안내와 권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수월성 중심의 작품 선정을 한다거나 공연예술창작산실이 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기 어려운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율을 아예 규정해 놓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예비예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더라도, 이게 오히려 그 자체가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왕우리 예술인력양성팀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097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심의 결정의 건부터 제1100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던 사업들이지만, 지금 해당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1097호,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1098호,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1099호부터 1100호까지 의 결사항 개요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안건 1097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 외 분야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의 신작과 2차 제작지원으로 나뉘져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고요. 올해의 신작의 경우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공연예술의 우수 신작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제작지원의 우수 신작의 2차 제작지원을 통해서 대표 레퍼토리로 견인하는 사업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신작 후보의 경우에는 총 206건이 신청해서 그중에 행정결격을 제외한 191건이 심의대상이었고요. 최종 선정건수는 42건 11억 2,5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선정비율은 약 20.65% 정도고 잔여예산은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차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신청건수가 29건이었고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을 통해서 발표된 작품 가운데 2차 제작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총 29건이 신청했고 그 가운데 23건이 심의대상 건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건수는 10건이고 지원결정비율은 36.4% 정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규모는 올해의신작의 경우 현재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 공연을 가기 위한 실연 심의에 대한 대상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극 2,500만 원, 창작뮤지컬 3,000만 원, 무용과 음악 2,500만 원, 창작오페라 3,000만 원, 전통예술 2,500만 원 등 정액지원을 하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는 연극은 최대 1억 원, 창작뮤지컬 최대 1억 8,000만 원, 무용 7,000만 원, 음악 7,000만 원, 창작오페라 1억 8,000만 원, 전통예술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심의는 전통예술 분야 11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차 인터뷰 심의가 창작뮤지컬 12월 19일에 종료가 돼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담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심의위원 후보단 내 적격자 지정을 5명씩 하였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은 음악 분야의 심의위원 후보단 내 적격자 지정이 4명이 있고 음악 분야 비상임위원 1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선정 방식은 사무처 그리고 해당 분야의 비상임위원님들이 각각 1배수에서 1.5배수 내외로 후보단을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에 참여가 가능한 위원님들로 구성해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199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올해의 신작은 총 280건이 신청했고요. 신청규모는 73억입니다. 그 가운데 행정결격이 2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제작지원 사업은 총 35건이 신청했고 신청액은 30억 4,1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행정결격이 6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 배정예산은 12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행정결격 사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작산실은 참여하는 핵심 창작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핵심 창작진들의 참여 동의서와 서명이 누락된 경우 그리고 예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그리고 연극, 뮤지컬, 음악, 오페라 분야에 해당되는 대본과 악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타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행정결격 사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세부 분야별로 지원 결정된 사안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 연극 올해의 신작 후보와 2차 제작지원 사업 총 19건이 신청했고요.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1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균형 제도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극 분야에서는 아쉽게도 비수도권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지원 대상자를 5건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신작 4건, 2차 제작지원사업 1건입니다. 이렇게 예비지원대상자 선정건수가 많은 것은 창작주체 쪽과 올해의 신작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극에 회피 건은 총 2건이 있고요. 행정결격은 204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이 총 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작뮤지컬로 205쪽입니다.

총 1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1,000만 원이 결정되었어요. 그 가운데 올해의 신작 후보에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차 제작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뮤지컬 분야도 비수도권의 작품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대상자 선정을 총 2건 하였는데요. 올해의 신작 후보와 2차 제작지원사업 각각 1건씩 예비지원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역시 해당 내용도 아까 창작주체와 창작산실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창작뮤지컬의 회피 사항은 총 2건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6쪽의 창작뮤지컬은 총 9건이 행정결격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핵심 창작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보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음악입니다.

지원결정 현황은 총 10건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원을 지원결정하였어요. 올해의 신작

후보에 총 8건을 선정하고 지원배정액은 2억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2차 제작지원의 경우는 총 2건을 선정했고 지원결정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해당 건은 비수도권이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지원선정 현황은 10% 정도가 됩니다. 역시 예비지원 대상자를 2차 제작지원 사업에서 2건 선정하였습니다. 제척은 해당사항이 없고 심의 회피는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결격은 올해의 신작에서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창작오페라입니다.

총 5건이 결정되었습니다. 3억이 지원결정되었고요. 올해의 신작 후보에 9건이 신청해서 4건이 선정되었고 지원결정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잔여예산은 6,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차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건수가 총 3건이고 그 가운데 1건을 선정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결정 하였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비수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창작오페라가 지역 민간오페라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있어서 비수도권이 총 4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로 비수도권의 결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 제척과 회피 사항은 없고 행정결격은 총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전통예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건이 결정되었습니다. 3억 9,800만 원이 지원결정되었고 올해의 신작 후보에 총 8건이 결정되어서 2억을 지원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제작지원 사업은 3건이 선정되었고 1억 9,800만 원이고 잔여예산은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지원현황은 총 8건 중에 신작은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8.1% 정도로 지금 현재 지역이 배분되었습니다. 예비지원 대상자는 총 2건으로 올해의 신작에서 1건, 2차 제작지원에서 1건을 결정하였고요. 심의 회피 건은 총 4건으로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총 3건의 행정결격이 있었는데 필수자료 미제출, 신청자격 미달 등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가능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드렸고요. 보고는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이 의안번호 1098호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다운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다원예술창작산실 주체사업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서 총 40건 19억 6,8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다원 분야는 2가지 사업으로 나뉘져 있었는데요. 단년 지원사업인 창작산실 그리고 3개년 단년인 창작주체로 나뉘져 있습니다.

단년 사업의 경우에는 총 300건이 신청 접수되었고 선정건수는 37건입니다. 약 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에 3개년 주체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건수 65건 대비 3건 선정으로 20대 1 정도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단년 사업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입니다.

지원규모를 보시면 개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최대 7,000만 원 규모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전년 최대 5,000만 원 대비 약 40% 상향한 단가로 인해서 선정건수는 전년 53건보다 약 10건 적은 건수를 뽑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저희가 총 4일에 걸쳐서 약 50여 팀을 인터뷰해서, 대상사업은 모두 인터뷰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단년사업과 다년사업에 각각 배은주 위원님과 저희 내부 사무처의 김윤희 심의관이 사업을 나눠

서 심의를 한 부분을 특이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4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지원제도로 인해서 지역단체를 가급적 배려해서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실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 지역단체를 선정하였고, 이어지는 248페이지를 보시면 3개년 다년 사업 창작주체의 경우에는 약 33%의 비율로 지역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아니었다면 조금 선정이 쉽지 않았을 단체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음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께서 의안번호 1099호부터 1100호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안건번호 1099호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공연예술 창작주체 정시공모 지원심의는 공연제작 60건, 창작공간 17건, 공연비평 14건으로 총 9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결정금액은 98억 9,900만 원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공연제작과 창작공간 그리고 257페이지의 공연비평에 대해서 소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예술창작주체의 사업목적은 공연예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 플레이어의 중장기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해서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공연제작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 지원을 통해서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단체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지원규모에 나와 있듯이 유형이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제작, 창작공연, 공연비평입니다. 단체에 따라서는 공연제작과 공간을 같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단체에 따라서는 이 3가지를 같이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유형별로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1차 서류, 2차 인터뷰를 통해서 10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비평 같은 경우 문화일반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르별로 전담심의제가 적용되면서 비평은 통합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담심의위원 외부 4인과 내부 전담심의관 1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용 같은 경우 표에 나와 있지만 성기숙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무용은 3명의 전담심의위원과 비상임위원 1명 그리고 내부 전담심의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듯이 해당 장르별로 비평에 관련되신 분들, 기본적으로 전담 내부를 1명씩 포함시켰고 외부의 비평 관련 전문가들 2명씩 참여해서 총 8명이 비평은 통합심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통예술 쪽의 일부 12월 13일에는 원일 전담심의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해서 4인의 심의위원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정방법은 1차와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진행했다는 내용이고 2차 인터뷰 때는 약 5분간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10분 정도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의기준은 기존의 자료라서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접수결과에 대해서 전체 293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8건의 결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4개

단체의 285건에 대한 사업유형별 심의를 진행했고요. 표의 아래에서 보시면 특이하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은 결국 8건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신청서 부분에서 5년간의 활동 이력과 공공지원의 이력을 반드시 필수서류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을 하거나 냈는데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행정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서류 미제출이나 거의 미제출에 가까울 정도의 미흡 건을 조사했더니 94건으로 약 33.3%를 차지하게 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사무처에서 공공지원 이력과 활동을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서 심의에 일단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장르별 지원심의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셔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예산 배분은 저희가 균등 배분과 추가 배분 방식이 있는데 추가 배분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의 지원건수와 지원신청, 지원액 결정의 비율 그리고 올해 지원신청건수와 신청금액 비율을 적절히 조합해서 안정성을 꽤 하는 사무처 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균등 배분과 추가 배분을 통해서 각 장르별 예산을 배분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28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극·뮤지컬입니다.

총 142개의 건 중에 32개를 선정했습니다. 중장기창작지원은 25건이 되고요. 창작공간은 7건입니다. 이 역시 지역균형 제도를 준수하려고 최대한 심의위원회에 권고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유념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를 보시면 중장기창작지원 공연제작은 약 24% 그리고 창작공간은 71.4% 포함 34.4%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제척과 회피 현황은 자료로 같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무용입니다.

총 32건 중에 1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50%의 비율이고요. 전체 15억 9,500만 원의 지원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용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저희가 4건을 선정했는데 비수도권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수도권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연제작은 25% 정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284페이지 음악입니다.

음악은 총 16건이 결정되었고 21억 4,9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비수도권 비율은 공연제작은 다소 떨어집니다. 1개 단체에 대해서 가급적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으나 여러 가지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단체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떨어지면서 비율이 확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은 33.3%로 포함 18.7%의 권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은 총 1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4억 7,5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공연비평이 있습니다.

16건이 신청했고 1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률이 매우 높고 심의위원회에서 장르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나왔던 말씀은 장르의 어떤 비평의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떨어트리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14건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기관누리집과 국가예술지원시스템 NCAS에서 개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요. 이후에 지원심의결과 상담 접수나 움부즈만 그리고 기타 모니터링 평가를 해서 2025년 말까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적격자 처리는 결과 발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289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중지원 선정자 처리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과 중복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장운

영팀과 협의를 해서 2개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로 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예비대상자를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연제작은 다 중장기 제작입니다. 그래서 3년 지원이 되고요. 창작공간 중에는 일부 다년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 2건이 있었는데요. ○○○○○○극장이 있었고 ○○○○○○라고 대구의 공연예술 아트벙커가 해당되었고요. 전통에는 국악전용극장인 ○○○○이 다년지원이 되었고 음악은 ○○○○○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평 쪽에는 한국연극 그리고 무용 쪽은 ○○, ○ 등 2건이 다년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 안건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0호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0호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31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건을 선정했고 지원결정액은 33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수 공연예술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 기반 구축과 국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까지 전국 단위 규모의 공연예술제가 되고요.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경과는 마찬가지로 1차 서류로 장르별로 진행했고 2차 인터뷰로 장르별로 진행해서 총 8회를 진행했습니다.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는 앞서 창작주체 심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선정방법도 1차와 2차 인터뷰로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심의기준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에 맞게 수행역량이나 목표, 계획, 충실성, 기대효과를 봤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번에 통합 유형을 기존의 방식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축제가 있고 7월과 8월 달에 위원회가 조직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통합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떠나서 장르 주체 간 다자간 규모화를 위해서 통합해서 들어왔을 때는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고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르별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가점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적용 점수는 사무처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장르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거기의 동의를 받아서 1차 서면심의에 한해서 전 장르 해당되는 단체는 1점씩 가점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접수 결과에서는 총 94건이었습니다만 2건의 결격이 있어서 92건, 신청금액 160억 원에 대한 금액으로 저희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필수서류 미제출 부분이 창작주체보다 조금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처에서 분명히 정리를 할 것이고요. 45.7%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처에서 확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이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총 33억 500만 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7월과 8월에 진행되는 축제에 대한 운영비 예산 5억 원을 별도로 제외한 금액이 3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균등 배분과 추가 배분을 통해서 장르별로 배분했고 3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연극·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총 1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0억 7,5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었고요. 이 사업

은 지역균형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행사성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비대상자 선정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의 제척 등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2페이지 무용입니다.

11건에 7억 5,000만 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음악은 총 5건에 9억 5,900만 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선정도 ○○○○○○○○가 되었습니다. 심의 제척과 회피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 분야는 총 5건이 선정되었고 5억 2,1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균형제도는 미적용이었으나 지역과 비수도권 선정현황이 약 40%에 해당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아까 주체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스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 제1097호 안건부터 제1100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고심해서 좋은 작품을 뽑아낸 게 서류상에도 보이고 담당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했을 때 굉장히 고심해서 진행했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결격 사유가 꽤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나 필수서류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할 때 단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서 어떤 부분이 많이 미비한지? 어떤 부분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지를 현장에, 물론 제출하지 않은 그분들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좋은 단체들이 조금 더 심의 대상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심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가능하다면 전담심의위원님들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라든가 해당 분야에서 꼭 체크를 해야 한다거나 기타 등등 모니터링을 하는 방향성을 비상임위원님들과 전담심의위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축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올 때 공연들을 안내해 주시는 하는데 오늘 선정된 수 많은 작품들을 추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일반 위원님들께도, 창작산실이나 창작주체나 선정된 모든 것들을 공유해 주셔서 모니터링 일정에 맞춰서 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장르 위원님만이 아니라 문화일반 위원님들도 함께 다니시면서 작품 전체가 어떻게 선정되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디테일하게 그 사업이나 인력이나 축제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작산실이나 극장 공연들을 찾아서 연락드려서 공연을 보러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전부 다 안 들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공연 안내를 드리기는 했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당연히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그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요.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공동 카톡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그때, 지금은 월별로 올리잖아요.

지금 우리 이메일은 월별로 그것을 올려주셔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이훈경 위원님이 이 건 말고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끝나고 말씀할까요? 지금 말씀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말씀하세요.

구문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기준들이 있는데 장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분야에서 심의기준치를 쭉 봤는데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고 주관적인 평가 기준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정량적인 지표로 바꿀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체의 규모가 적절한가?” 라고 나오면 서승미 위원이 혼자 하는데도 굉장히 우수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유연하게 평가 기준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현장평가에 갔을 때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계획서를 받으면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가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배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핑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량지표가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재검토, 이번에 다 끝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정량지표가 가능한가? 어떤 것이 주관적인 것을 가장 극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하면 어떨까? 그래야 심의위원이 참여를 하던 안 하든 객관성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지금 구문모 위원님 말씀처럼 정량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그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량평가가 되면 그렇지 않은데 해당하는 부분을 넣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었는지? 이 의결은 끝났나요?

정병국 위원장 : 아직 의결은 안 되었어요.

서승미 위원 :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번호 제1097호부터 1100호까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문모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가기준에 대해서 보면 긍정적인 기대효과라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긍정적인 영향” 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제로 나중에 세밀하게 어떤 위원이 참여하더라도 긍정적이라고 하면 예술위원회가 갖추고 있는 가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 놓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쭉 관찰을 해 보니까 주관성이 굉장히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01호 2025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의 건입니다.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 : 예. 회의자료 340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1101호 2025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위원회 직무에 의거해서 2025년에 수행하는 예술지원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사업의 정책연구과제, 소요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연구과제 후보군을 선정한 결과 4개 과제가 후보군으로 선정되었고요. 총 2억 5,800만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예산은 일반연구비로 총 2억 5,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지난 7월에 있었던 위원회 논의에 따라서 조사연구계획 사업을 전체회의 의결 안건화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의결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를 접수 받았고요. 담당부서인 예술정책·후원센터에서 장르별 문화예술 생태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외 3건을 제안드렸고 비상임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창작과 성장의 조화 등 총 10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20일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내부 2명의 본부장과 외부 5명의 교수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급성, 시의성, 필요성, 실효성, 확산가능성, 차별성 등 6가지 기준으로 채점심의를 하시면서 검토의견까지 주신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순위 1번은 장르별 문화예술 생태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였고요.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1차년도 연구를 했고 내년도에 2차 연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장르별로 2,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배정했고요. 이게 3년 차 계획인데 2년 차에도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르를 포괄하는 연구도 추진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 책임성 확보 방안입니다.

이 연구에는 약 2,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용역심의에서는 이 과제에 대해서 추상적인 논의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책임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자율성에 대한 균형도 고려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신규 통계 개발 사전연구는 4,8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중요하고 특히 내부 통계 인프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창작과 성장의 조화에 2,5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예술경영센터의 용역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은 중요한 이슈이므로 유사한 연구와 차별화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5번부터 12번까지는 일반연구비로 수행하지 않지만 예술정책·후원센터의 박사급 연구원들 그리고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실질적인 수행이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번의 한국문예연감조사체계연구는 예술정책·후원센터에서 자체수행 그리고 6번 문화환경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지원 시스템 구축은 저희와 지원총괄팀 그리고 민간후원의 현황과 문화예술지원의 의미 분석은 저희 센터 내에 후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하고요. 그리고 관객 개발의 실질적 가능 여부와 공공성과 단체의 협력은 기존에 호주, 싱가포르와 교류하면서 자체 연구로 해 왔던 게 있어서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계의 중장년층의 예술 활동 지원 및 현장조사와 보완 방법도 자문회의 중심으로 자체 연구를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지역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방법과 지역예술과의 연계성 역시 실제 사업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과 12번은 지금 전체적으로 예술기관의 전문성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재단과 사례 분석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 전환 20주년에 따른 예술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도 50주년 기념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기획조정팀과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2억 5,800만 원에 대한 과제를 결정해 주시면 이후에는 추진부서 및 연구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연구를 추진하게 되고요. 지금 장르별 문화예술 생태계 연구 같은 경우 많은 위원님들과 전담심의관들께서 잘 참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1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년 차 계획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오늘 너무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연극·뮤지컬 분야에서 연극 쪽의 문화예술 생태계 파악에 대한 인터뷰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2년 차, 3년 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년 차가 다 끝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았으면 문화일반 위원님들께도 일정이 가능하다면 함께 오셔서 인터뷰를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십사 요청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해당 장르인 저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에 대한 문제성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문화일반 위원님들도 오셨더라면 조금 더 실감나게 듣고 현장을 파악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4번까지는 진행이 되는 연구로 올라간 것 같고요. 5번부터 13번까지 안들은 추후 진행을 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 :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이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면서 선정된 작품들이 홈페이지에 누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뭘 찾으려면 한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은 것들은 연도별이나 장르별로 나눠서 올려준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아르코의 플랫폼이 사업별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통합을 했고요. 지금 서승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올라오게 하고 더 나가서는 영문 버전까지 해서 해외에서 한국과 교류하거나 초청하고 싶으면 여기 플랫폼에 들어오면 알 수 있게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통합플랫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 많은 정책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나서 그것을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버전의 통합플랫폼이 가동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추천된 4건의 순위를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라는 것은, 특히 아르코 같은 경우에는 연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개의 추천 순위 과제 중에서 2번과 4번을 보면 “이런 연구를 해서 우리 아르코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여러 가지 맥락에 의해서 정하기는 했는데 연구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되게 모호하고요.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면 안 되고요. 정말 앞으로 아르코 사업의 방향성이나 운영의 방향성과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과제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 창작과 성장의 조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과제만 보면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제를 왜 아르코에서 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심의제도 책임성 확보 방안」 결국 심의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책임성 확보 방안이라고 가서 이게 맞는가? 이 정도로 가서 과연 지금 현재 심의 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각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신 게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3건만 예술정책·후원센터에서 정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협의를 하고요. 올라왔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안들을, 특히 관심이 있고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지만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에겐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2건인데 전체적으로 정책연구가 가능해요?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 : 예. 13건 중에 저희가 의결할 것은 4건에 대해서 2억 5,800만 원에 대해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돈이 나가는 거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 : 예. 나머지는 사실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4건은 일단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확정하도록 하고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에 대해서는 의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과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보고안건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장미진 위원님께서는 성원보고 이후 회의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이석을 하셨으므로 모든 의결에서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5.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이훈경 위원 :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30분에 개회를 하도록 하고 잠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건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2025년 예산은 총 5,77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입 및 지출 규모에서 동일합니다.

(2)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를 보시면 5,777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수입과 지출 규모를 토대로 최종 기말적립금을 계산한 결과가 (3)번에 있는 적립금 현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올해 말 기준으로는 654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다소 늘어난 677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국회 증감 및 조정 세부 내역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증감 조정이 없이 저희가 8월에 보고드린 정부안으로 의결이 됨에 따라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수입·지출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중심으로 전반적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총사업비는 4,339억 원으로 전년도 4,256억 원 대비해서 2%가량 증액이 되었고, 저희가 요구한 값인 4,431억 원과 비교하면 2.1% 덜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 중심으로 보면 먼저 예술창작지원에서는 지역에서 1차 지원한 작품을 예술위원회가 2차 지원해서 전국단위의 작품으로 키워내는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이 48억 원 신규 반영이 되었고요. 학전소극장 재대관 지원사업으로 아르코꿈발극장 운영비로 1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문화예술 세계총회에 6억 원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예술가와 협업을 위한 사업인 인바운

드 국제협력 강화 사업이 3억 원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은 기존에 예술인력육성 쪽에 있었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통합을 함으로써 86억 원이 반영돼서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된 값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술창작지원에서의 주요 사항이었습니다.

예술인력육성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과의 통합을 통해서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29억 원이 순감되었고요. 예술인력교육플랫폼 ‘문화예술 내일’을 운영하고 있는 비용 8억 원이 순감된 상황입니다.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42억 원에서 내년도 279억 원으로 약 38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보면 예술나무운동이 10억 원 증액, 민간후원활성화에 4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문화예술향유지원은 크게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발급금액이 올해 13만 원에서 내년도 14만 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239억 원 증액된 2,636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올해와 동일하게 17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말씀드린 내용들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인데요. 지난 8월 말에 보고를 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자료로 같음하고자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약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국제문화교류에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하고 여유자금운용에서 이 내용이 밑에 비통화금융기관예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행계획이라는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창작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올해 47억 3,800만 원에서 내년도에 43억 6,200만 원으로 3억 7,600만 원 약 7.9%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사항은 문체부의 정책에 따라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예술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재조정하면서 글로벌창작역량강화나 글로벌네트워크강화에서는 일부 순감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인바운드 국제협력강화,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공동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서 3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전반적으로 대략 3억 7,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는 지금 보시면 수입에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가 있고요. 지출에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가 있습니다. 맥락을 같이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수입에 있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는 여유자금 중에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예치금을 회수하는 금액인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기재부에서 통보되는 수치입니다. 원래 산정방식은 한해동안 예술위원회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고 그 총액을 명시하는 건데요. 기재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862억 9,800만 원을 기재부에서 통보값으로 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수입·지출의 총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출에서 비통화금융기관예치를 이룰 고려해서 조정했을 때 저희가 올해는 98억 7,300만 원으로 맞춘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에서 지출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여유자금운용금액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을 맞추기 위한 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끝인가요?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나와야 이해

가 되는데요. “받아서 예치를 한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러니까 수입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적립을 하는, 수입과 지출에 동시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편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금액을 할 때 먼저 수입에 배정하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실제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산정해야 하는데 실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가지고 운영할 자금이 있어요.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축적했던 700억 가까운 돈과 거기에서 내년예 정부 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는 게 효율적인가? 거기에는 비통화기금에다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할 수도 있고 증권에 할 수도 있고 은행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가 따로 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기별로 그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운용을 해왔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돈을 수시로 쓰게 되잖아요? 쓰게 되면 운용할 수 있는 돈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정부에서 운용하는 위탁기관에 다 넘겼어요. 우리가 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게 정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다 넘겨요. 그리고 기재부가 그렇게 하기를 권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 넘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혹시 필요하시면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사무처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전은 2025년 예술극장 정기대관심의 결과에 대해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2025년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극장은 현재 공공극장으로서 역할 확대를 위해서 현장 소통과 예술가(단체)의 파트너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요.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 기후, 접근성, 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축제사업을 위해서 국제축제의 경우는 2개년을 선정해서 대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장의 주 장르인 연극과 무용, 장르 간 균형 있는 지원 그리고 축제와 개인. 축제는 30%, 개인 예술단체는 70% 정도로 단체 간 균형 있는 공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대관에 대한 접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대관일수가 2024년도 대비 약 102일 정도가 줄은 668일이 대관공모기간에 올라가 있었어요. 대관일정이 약간 줄은 사유는 2024년도 문체부와 협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극장의 운영방안에 따라서 창작산실에 올해의신작 시즌제 운영, 그다음에 2차 제작지원 사업이 11월과 12월에 시즌제로 운영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일정과 예술위와 문체부 산하기관이 하고 있는 IFACCA 등 국제행사 일수 등이 반영되어서 총 102일 정도가 줄은 상황에서 대관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접수결과 256개 단체가 지원했고요. 연극이 120개, 무용이 116개 그리고 뮤지컬 등 기타 장르가 20개 정도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35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대관운영 규정에 따라서 사무처의 극장장님과 외부 위원들로 구성해서 심의가 진행되었고요. 1차 연극, 무용 서류심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2차 인터뷰는 1차에서 통과한 축제사업에 한해서 통합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3차는 1차와 2차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대관일수와 대관 일정 등을 조정하여서 통합심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결과로는 최종 84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전년 대비 7개 단체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관공모에서도 예비지원대상 제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종 선정된 건 외에 예비후보를 결정해서 만약 대관을 포기했을 경우 고득점 순위로 해서 바로 대관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원신청 대비 결정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3.0대 1에서 2025년도에는 3.05대 1로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신청 접수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공연장르별 일수 결정 현황이 중요합니다.

연극이 공연건수로는 33.33% 정도의 비율로 28건이 선정되었고요. 무용은 약 53건으로 63.1% 정도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일수를 보시면 연극은 대관일수가 전체적으로 많고 공연회차가 길기 때문에 대관일수로는 322일로 50% 정도고요. 무용은 289일로 45.3% 정도의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단독 공연 결정 현황인데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축제가 약 30%, 단독 공연이 약 70% 정도의 비율로 결정해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축제가 약 28.74% 정도의 건수와 일수로는 37% 정도, 단독 공연은 건수로는 71.26%로 일수로는 62.86%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전년 대비 결정 현황들은 대관일수가 약 13건 정도가 줄어서 84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사항들을 접수해 주시면 이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실질적으로 외부 공연으로 대관할 수 있는 일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라서 그냥 여쭙보겠습니다. 지역콘텐츠들이 유통의 확장성 개념으로 인 서울이 사실 목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관이 확정될 때 지역콘텐츠에 대한 배정 비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지역 작품들에 대한 경우 별도의 가중치나 쿼터를 두지 않고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래서 지금 선정된 것을 보면 지역 공연들이 없는 듯해서요. 혹시 추후에 이런 점을 녹여내실 수 있으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작품들에 대한 확장성이나 유통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연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때 지방에서 올라오는 우수 작품들을 우리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이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토를 해 보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여기 심의위원들은 우리 장르 위원들이 추천하신 분들인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아닙니다. 해당 심의위원 구성은 저희 공연장 운영규정에 따라서 전체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극장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극장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분들로 사무처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규정이 따로 있어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공연장 운영 규정 안에 따로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극장하고 미술관은 미술관장이나 극장장이 그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율성을 줌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갑영 위원 :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이라고 했을 때 현물지원이 있고 극장에 대한 배분도 지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위원들이 추천위원을 선정한다고 하면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이것도 극장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규정에 따라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번에 일수가 100일 줄었잖아요.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거기에서 우선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 2025년 IFACCA 문화예술 세계총회 추진 경과에 대해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지난 6월 제377차 전체회의에서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진행되었던 내용들 중심과 향후 추진계획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보고 이후에 8월에 공식 등록 페이지를 오픈해서 계속 등록을 받고 있고요. 지난 8월에 IFACCA 이사회에 위원장님께서 줌으로 참석하셔서 중간보고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발표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가·부 여부를 확정하면서 참여자들, 특히 발제자들 중심으로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에 중동 출장을 갔을 때 IFACCA 사무국의 프로그램 총괄이 두바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28일과 29일에 집중 회의를 진행해서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총회 프레임에 한국과 물리적 결합뿐만 아니라 화합적인 결합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정서 등을 중점으로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나머지 세션에 대한 발제자 섭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개막식 개최 장소인 DDP 대관이 확정되어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366페이지 (4)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IFACCA 사무총장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 예정입니다. 확정된 장소들을 다 살펴보면서 행사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오픈된 등록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회의 기준으로 4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국제참여자 비율은 70%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전까지 주요 프로그램이나 스피커들 섭외를 해서 섭외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기타 갈라디너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총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월이나 3월 중에 사전 발제문에 대한 확정과 배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번 주요 현안입니다.

국내정세 변화에 따라서 조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12월 3일 이후로 12월 5일에 위원장님 서명이 담긴 서신을 IFACCA 쪽에 보냈고요. 12월 10일 IFACCA 사무국과 줌 회의를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진행했습니다. 리스크관리도 주요한 임무 중 하나가 돼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현안으로는 장애인 접근성 확보나 4개 국어 통역제공 그다음에 남반구가 전세계 이슈인데요. 이 쪽에서 초청 규모에 대한 확대 요청이 온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항들로 인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미적용 건입니다. 국고로 20억 이상의 행사일 경우에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미적용 건으로 20억 이상 국고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 후원이나 현물 협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7쪽입니다.

5월 27일 DDP에서 개막행사가 확정되었고요. 갈라디너는 5월 29일 한강을 활용해서 한강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러 상황을 살폈는데 한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장소들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르나에 공원을 둘러싼 극장이라든지 미술관 등 공원 일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국제프로그램자문위원회 IPAC에서 개발한 38개의 세션이 제공됩니다. 통합세션은 9건, 병행세션은 29건입니다. 이게 3일 동안 38개가 순차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아마 아침 7시 30분이나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극장과 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세션은 유튜브로 송출하고요. 한영으로 진행되고 병행세션 중에서는 최대 4개 정도 한·영·서·불 동시통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69쪽과 370쪽은 IPAC에서 결정한 주제들을 놓고 IPAC과 IFACCA 사무국과 참석하실 분들에 대한 리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굉장히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작년부터 잘했는데요. 이게 기관만의 행사가 아니라 홍보가 널리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려서 아르코의 존재도 알리는 것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사업의 등록비가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민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의 유관기관이라든지 행정이나 정책학회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유치할 예정이고요. IFACCA 측과 계속 협의 중인데 학생들이 이것들을 들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등록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세션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생중계

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통합세션 등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유치를 했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데는 IFACCA 총회 실무국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다각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입회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원국들은 연간 회비가 있어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님들은 그냥 참석하시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들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참여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어려운 것은 우리가 IFACCA 총회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외부 후원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12월 3일 이후에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최할 수가 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줌 회의를 통해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줌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매일 언론을 통해서 뉴스만 보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왔다갔다하는 극단적인 장면만 보니까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왕래조차 안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특히 시위하는 영상과 K팝 공연하는 영상을 동시에 올려주고 “뭐 같냐?” 라고 하니 “콘서트가 아니냐?” 라고 해서 “이것은 시위현장이다.” 이 정도로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제가 그 회의를 하면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날 장관주재로 기관장 회의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 특히 국제적 교류 등은 더 도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인식으로 남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각 기관에서 해외출장이나 교류 등은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심지어 송년회든 뭐든 계획했던 대로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IFACCA 총회에서 1월에 와서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점검을 하러 오고 4월에 아부다비에서 IFACCA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저보고 직접 와서, 모든 경비는 자기들이 내니까 직접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가겠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환율이 이렇게 뛰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그리고 문화라는 아젠다가 유네스코 SDG에 단독 의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IFACCA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요. 내년 9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네스코 주최 전세계 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계속 목소리를 내서 포스트 SDG 2030년에 문화라는 의제가 단독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아마 스페인 쪽에서 장관님이나 여러 장관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당연히 DDP오프닝 때는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수, 목, 금요일에도 가급적 시간을 비워서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끌어 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인들 단체장이 오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어드벤처를 우리가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본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은 2025년 교류협력팀 국제교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교류협력팀의 국제사업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기획사업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돼서 저희 국제사업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2025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예술위는 발표나 행사지원이나 계기성 사업들이 좀 배제되고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위축되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 삼아서 중장기적이고 긴 호흡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는데 씨를 뿌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372쪽 (1)번을 보시면 예술위 국제교류사업의 방향성은 창제작 중심, 인바운드 강화, 매개의 확산 강화, 리더십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창제작은 해외레지던시와 국제협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녹여내고 있는데요. 일단 권역을 다각화 하자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유럽이라든지 미주 중심으로 영어권으로 진행되는 권역에서 그 부분들은 이미 무르익어서 위원회에서 엄청난 집중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뚫기 어려운 권역들이나 많은 교역을 하지 않는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도 생각을 했는데요. 아프리카는 외교부나 코이카 등 면밀한 미팅을 통해서 북아프리카까지는 좀 안전하지만 그 밑은 민간이 활동하기에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서 어쨌든 보류하고 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너무 멀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르코 연계지원의 세르반티노는 일단 발을 걸어놓고 그쪽에서 사업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레지던스 사업 같은 경우 국제협업에서 조금 커비가 되지 않은 문학이나 예술-기술 융합, 공연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또한 창제작에 방점을 찍다보니까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예술가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끌어내는 매개나 기획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서 국제협업지원 안에 기획·교류라는 매개자를 위한 유형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공모사업에서도 배분을 한다고는 했지만 조금 누락되거나 집중 발굴하고자 하는 권역이라든지 분야나 장르의 부분들은 예술가, 기획자,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 리서치트립 같은 기획사업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익스아카데미 협력이 2026년에 20주년이 됩니다. 10주년 때도 아르코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네덜란드의 시각예술 쪽 지원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한국-네덜란드 교류 전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아르코사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을 진행했는데요. 멕시코 세르반티노 국제축제 참가 및 지역투어는 창작산실이나 창작주체에 한해서만 사업을 열었고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30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본 전시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선정되셨는데 트랙이 없어서 결국은 들고 돌아서 예술위원회에서 거의 지원한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및 건축전 본 전시 트랙을 열었고 내년 건축전인데 1개 단체가 본 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2026년부터는 문화계의 팔로우십 선정 작가를 우대해서 가점까지는 아니지만 보통은 배수로 해서 3이라고 하면 3+1 정도로 해서 해외기관에서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트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 면밀히 협의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인바운드 국제협력입니다.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도 올라가고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많은 것들이 아예 밖으로 나가서 그쪽에서 휘발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하나는 한국의 지역성이 보편적인 국제 담론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아시다시피 지역소멸 사업을 진행하는데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는 최북단 마을인데 이쪽에서 어떠한 평화나 전쟁의 메시지가 어쨌든 국제적으로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할 수 있도록 일회성이나 연례적 축제나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 해외가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문화적 지원 활성화 사업과 연계를 하고 구체화 시켜서 공모계획을 만들어서 1월에 의결을 받고 2월에 접수를 해서 결과를 3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아까 문화예술 세계총회도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류라든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국제협력도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행사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하고 저희들이 그냥 참석해서 쳐다보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데 어떤 분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원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가능한 분들은 참석을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으로만 돕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실질적으로 아직 연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큰 주제들은 38개가 나왔는데요. 연사안을 구성하는 단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추천을 하고요. 추천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IFACCA는 소수나 여성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시아에 꼭 여성이 있어야 되고..... 산술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추천해 주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일단 현재 정해져 있는 주제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주제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IFACCA 사무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총회를 유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장을 통해서, 우리가 회의에 가는 것은 인원이 한정되잖아요. 외국에서 했을 경우예요.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아르코 직원들까지도 그 과정에서 네트워킹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교류를 하거나 할 때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시간을 활용해서서 적극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참여를 해서 발언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션이 모두 나뉘지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세션별로 배정해 드려서 같이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문체부의 입장이 모든 것을 딱딱 구분을 해놔요. “국제교류는 코피스에서 한다.” 그리고 “유통은 예경에서 한다.” 이렇게 해놓는데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예경이나 코피스, 번역원과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지원방향은 기초부터, 예비예술인부터 단계적으

로 청년도약, 창제작 그다음에는 전국 유통.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까지 하는 트랙을 만들어서 설계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냥 코피스에 넘겨주면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가서 공연을 한 것으로 끝나는데요. 공동으로 창작을 한다거나 공동 작업을 해서 네트워킹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팀장들에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발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인바운드 사업이라든지 우리 왕치선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다고 실무팀에서 그러는데요. 지금 예술인재양성팀에서 하고 있는 예비예술인들은 지금 예술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외 유학을 나가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서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라서 유학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네트워킹이 안 되고 한국에 와서도 안 되는 등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게 ‘아르코 앙상블 in 유럽’이라고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인데요. 유럽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활동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발했구요. 여기에서 선발하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 보자고 해서 지난 11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46명을 선발해서 시간이 가능한 사람 16명을 모아서 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에서 발대식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버스로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대학의 모차르트 홀에서 공연을 하면서 음악관계자들, 지휘자들을 초청해서 이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는데요. 일단은 먼저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로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두 사람이 컨택을 받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서 해서 보내거나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데 거기에는 기차를 타고 오니까 비용은 최소화 되면서 활동비도 주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소문이 나서 보훈처에서 “동맹 간에 하는 보훈음악회를 하는데 같이 하자.” 또 영국의 “K컬처 축제를 하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선발만 해 놓으면 그날 출연하는 출연료만 지급해 주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과 같이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코피스에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발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일일이 해당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해당 팀에서는 전체 위원님들께도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당 위원님과는 사전에 의논을 해 주세요.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후원의 밤 때 작가들한테 그런 것을 전제로 후원을 받아서 옥션을 한 게 현장에서 1억 4,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인바운드 국제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작품들을 지원해서 국내에서 예경을 통해 유통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선발한 것은 자동으로 후보 작품으로 넣게 했구요. 그다음에 코피스를 후보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 소위원회 9차, 10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이것은 김성범 팀장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기관중장기전략수

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경영전략소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6일에 경영전략소위원회 9차 회의 그리고 12월 16일에 10차 회의를 개최했고요. 중장기전략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차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으니 그런 내용들의 브랜딩과 슬로건을 제안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홍성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용찬 대표님과 접촉을 했고요. 관련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향점이 국민지향으로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관의 브랜딩 프로젝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관명보다는 외국인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아르코라는 이름이 조금 더 편하게 와 닿는 곳이 있고, 브랜드 콘셉트를 고려해 보면 아르코와 잘 어울리고 고객들이 “왜 그러면 아르코가 존재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객으로부터 브라보라는 찬사를 들을만한 최고 수준의 작품을 창조하고 브라보라고 말하고 싶은 작품을 접했을 때 이 작품들이 “아르코의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 “받았을 것이다.” 라는 연상 작용을 고려해서 ‘브라보 아르코’ 라는 슬로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브라보라는 명칭이 아르코와 음률도 비슷해서 어감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의 중장기전략 체계로 대국민에게 접근하는 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예술위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제안을 받았던 ‘브라보 아르코’ 라는 것은 비전 스테이트먼트보다는 기관의 브랜드 전략으로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비전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기관의 국민지향성을 강조하고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워딩으로 선정하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그리고 기타 내용들도 최종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붙임 문서에 보면 신규 중장기전략체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문화예술과 국민을 잇고 문화예술의 내일을 함께 하는 아르코’ 로 해서 예술과 국민을 향유로 연결하고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병렬 배치해서 최종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설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핵심가치도 공정성, 전문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있지만 각각의 해석에서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 각각 공정성, 전문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자고 해서 그 해설을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략목표 4가지 그리고 14대 전략과제를 최종 수립하고 관련 건은 위원님들께 서면 의결을 요청드려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슬로건 만드는 분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분은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을 만드신 유명한 분인데요. 처음 보면 ‘브라보 아르코’ 라고 해서 썰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OK SK’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SK를 성공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을 잘 살리면 좋은데요. 이것은 한국말로 ‘브라보 아르코’ 라고 써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이쁘게 잘하면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때 없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지 못했는데 저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도 이것보다 조금 더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안은 의결이 된 거죠? 서면 의결이 된 것이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의결이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서면 의결이 이미 되었고요. 지금 홍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호는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게 일반적으로 구호를 할 때는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하이 서울’ 이라고 할 때 “저게 뭐냐?”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하이 서울’ 이라고 하면 쉽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듣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적 위상이 이제는 브라보를 받을 위치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면 의미가 좋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미 기본적으로 전략목표는 의결이 돼서 다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죠.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8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크게 2가지 안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후원활성화 관련 법령인데요. 이 법들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이 10년 전에 비해서 과연 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후원활성화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 후원활성화 법을 조금 더 가다듬고 활성화 시켜서 후원의 근거조항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차원에서 후원활성화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코에서 후원활성화 법의 개정(안)을 한번 도출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회 토론회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국 때문에 국회 토론회는 일단 무산이 되었고 추후에 다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지난 소위원회 회의 때 받았는데요. 중간보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충실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원활성화 법 개정(안)을 만들려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용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시행을 했다고 하면 10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아마 이번 연구용역이 그동안 문화예술후원과 관련한, 후원활성화 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를 정리하는 수준의 연구용역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중간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은 민간공익법인 후원지수 개발 안건인데요. 이것도 민간공익법인의 후원을 유도하는 차원. 그리고 민간공익법인이 후원을 했을 경우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공익법인들에게는 조금 더 칭찬을 하고 뭔가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지수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과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문화재단과 같은 민간공익법인이 아르코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는데 그런 공익법인들을 정부가 지수를 통해서 뭔가 줄 세우기를 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민간공익법인 후원지수 개발도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시행을 하기 전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런 후원지수를 우리가 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당신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문화예술후원활성화 법률 개정은 제가 끝나고 자료 조사를 해 봤는데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제는 그대로 살리되 정부와 내용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를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한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니까요. 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진행은 괜찮기는 한데 민감한 게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중점적으로 신경쓰시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후원활성화 법을 보면 정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도 후원을 하면 어떤 어드밴티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선언적 의미밖에 되어 있지가 않고요. 또 정부에서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관 부서가 기재부라서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통해서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술인들,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자꾸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의견을 내서 여론화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의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술인들과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안)을 가지고 그래도 좀 나서줄 의원한테 청탁 입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작동이 되는데요. 원래 정부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정부(안)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것을 정부가 어떤 의원에게 부탁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정부(안)보다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예술계의 서명날인을 저희가 받는 작업이라도 해서 완벽한 법안을 만들고 정원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내부적인 안을 만들고 서명날인을 받는 과정으로 하고 정부가 정상화되고 국회가 정상화가 되었을 때 그것을 들이밀 수 있는 것을 올해 안에 관철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죠. 내년 안에 관철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문화지수는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데를 계속, 우수한 데는 발표를 해 주고 상도 주고요. 문화의 달에 훈장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재단을 잘 운영하는 데는 몇 대 재벌 이상에서 하나 선정하고요. 기업별 군으로 해서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고요. 문화재단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화재단에서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경영학회 관계자들과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얘기가 기업들도 문화지수를 개발해서 하면 우수한 데를 우리가 발굴해서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후원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ESG에서 S에 의무적으로 내는 걸 이쪽으로 내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끌어내 주자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쪽도 한번 해 보시죠. 하여튼간에 열심히 하는 곳은 상을 주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일곱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6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훈경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2024년도 마지막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예술생태계 진행 현황과 총 3가지 안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술생태계 진행 현황 같은 경우는 문학 같은 경우 거의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학의 진행 현황을 공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꼭 공유 받았습시다. 그래서 이게 2025년도 2월 정도에 발간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발간지가 나오면 다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다른 장르들도 어떤 것들이 현안으로 되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역예술도약지원이나 아르코 에이프캠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역시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모니터링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학생들의 소통과 교류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로 나왔고요. 컨설팅 진행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자칫 예산 확대에 대한 컨설팅이 되지 않도록 작품의 업그레이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조금 지켜보고 함께 의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시다. 그래서 2024년 회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예술창작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과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올해 목표였는데요. 이러저러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다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현장과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들을 추후 고민하는 것으로 2024년도 소위원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 자유발언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주시나요?

정병국 위원장 : 하세요. 그러니까 보고사항까지는 다 끝났고요. 차기 위원회 일정만 남았습시다. 그러니까 기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체크하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비대면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소통의 장벽이 느껴져서 대면회의 때 말씀드리려고 미루다 보니 오늘 발언도 많았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의결 참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에 오늘 회의를 해서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불참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회의에 오셨다가 사유를 설명 없이 나가신 위원님도 계셔서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습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2가지 체크사항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심의제 참여 의결이 된 이후에 10월 13일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TF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각 위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염려의 글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체크입니다.

당사자 배우와 통화를 하셨다고 장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의 이야기를 하자 전담심의제 관련해서 글을 올리신 당사자와 통화를 했고 그분께서 “이해한다.” 라고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과 소통한다는 저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의견이 반영 안 된다고 하더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두 당사자와 통화를 해 본 결과 장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해한다.” 라는 발언은 전담심의제도를 이해한다는 발언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위원 일이 힘들다.”, “사무국의 협조가 아쉽다.”, “위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연극현장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전담심의제를 이해한다고 발언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

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위원들이 왜 일을 못 하나?”, “사무국에서 안 도와주냐?”, “못하게 하느냐?”, “현장에서 소리를 모아줄까?” 라고 되려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고요. 물론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현장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선을 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쪽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어땠겠냐?”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될 일이지 “현장을 모른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해당 장르 위원한테 되물으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월 5일 전체 카카오 단독방에서 성기숙 위원님께서 문화연대 미팅 건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올리신 글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어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성기숙 위원님과 왕치선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이 만나셨다는 문화연대 세 분들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성기숙 위원님이 올리신 글처럼 기록이 필요해서 올리셨다면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올리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연대는 재심의와 규정 철회, 전담심의회 위원 참여 배제 또는 올해 안 된다면 시범사업 후 다음 연도에는 위원들의 심의 참여를 배제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듣자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예위의 기관 정체성, 위상 재정립에 대해서 문제를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 확인해 보니 이 일정은 사무처와 합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위원장님께 보고된 이후에 움직이신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기관의 정체성이나 위상 재정립, 문화연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문화연대와 이런 얘기를 나누신 것은 지나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장르 위원으로서 해명하시고 들으셔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예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러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후 이같이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모두를 반영하는 듯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답변을 원하는 이야기는 아니니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논쟁이나 분쟁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체크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심의제도를 진행하면서 느낀 겁니다. 누누이 그전에도 제안드렸던 얘기인데요. 심의위원 풀에 대한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수 인원을 보강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도, 특히 공연예술 쪽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을 빼고 나면 사실은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가능하다면 절차를 걸쳐서 공정하게 자천, 타천을 오픈하고 다시 한번 심의위원 풀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몇 달째 회의 속기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보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속기록이 공유가 안 되는지? 오픈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 9월부터 공유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속기록을 빨리 정리해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속기록은 왜 안 나오는 건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속기록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시면 오픈하는데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서면 의결로 받으면 되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서면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개별 발언을 하신 속기록이 온라인상에 배포 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출력을 해서 이 자리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난 것은 개별적으로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에 오셨을 때 받도록 하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최대한 빨리 받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발언을 하실 분 계신가요?

서승미 위원 : 팩트 체크 두 가지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점인데요. 양쪽의 이야기를 못 듣고 중간에서 항상 카톡이라든지 서면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헛갈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함께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요청사항 중에 심의위원 풀 구성도 2025년에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가 원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전통예술 쪽도 이번 심의를 해 보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회의자료를 좀 간명하게 하면 안 될까요?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는 너무 무겁고요. 회의자료는 그냥 회의자료. 그리고 해당 내용은 첨부자료. 그리고 일주일 전에 올렸다면, 어느 정도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려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되는 부분을 따로 올린다는지 해야지 너무 두껍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봐요. 일일이 봐도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약본을 올려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요구하는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저 개인의 분명한 주관적 의지도 있고 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의지나 제 생각을 반영하는 쪽으로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습니다. 개관적으로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적을 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위원회가 운영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표결을 안 하는 게 보기도 좋고 위원회의 단합을 위해서도 좋지만 그래도 의견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다른 것어요. 그런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이 달라서 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운영이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었든 어떻게 운영이 되었건 아직까지 문제는 없잖아요. 저는 지난 심의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나름 마음고생이 많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위원회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이런 저런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는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합의가 되면 만들

자는 차원에서 제척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면 저는 정상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카톡방을 통해서 그때그때 의견들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오해를 더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카톡방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자꾸만 괜한 오해를 낳아요. 그래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사무처를 통해서 답신을 드리도록 하고요, 개별 위원님들께요. 그리고 모든 안건은 회의 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12월 30일 2시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강당에서 우리 아르코의 종무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음악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해를 마무리 하는 우리 직원들, 그때 1년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는 자리니까 시간이 되시면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아주 아름다운 음악회도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지금 장관 주제로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들 연석회의에 참여한 관계로 내년 1월 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38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회의종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